

개과한 여성의 독보적 인물로 거듭나기 과정의 서사화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을 중심으로

한길연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목차

- 1 서론
- 2 개과한 여성의 독보적 인물로 거듭나기 과정의 서사화
 - 2.1 유사 사건을 통한 시험대 통과하기
 - 2.2 도덕성 고양을 통한 자질 현시하기
 - 2.3 주변의 멸시를 관대한 처사로 넘어서기
- 3 결론: 개과한 여성의 독보적 인물로 거듭나기 과정의 서사화의 의미

본고에서는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이라는 여성인물이 개과(改過) 이후 천선(遷善)을 통해 독보적 인물로 거듭나는 과정의 서사화에 주목하여 『유씨삼대록』이 장편소설의 개과천선 서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고찰하였다. 먼저 ‘유사 사건을 통한 시험대 통과하기’와 관련하여, 장혜앵 서사의 ‘미장아빔’인 장설혜 서사를 통해 장혜앵은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개과천선한 모습을 명시한다. 이는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단계이다. 다음으로 ‘도덕성 고양을 통한 자질 현시하기’와 관련하여, 장혜앵은 자기 수양을 통해 성현군자인 진양공주를 대신하는 독보적 인물로 격상된다. 이는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기’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멸시를 관대한 처사로 넘어서기’와 관련하여, 관용적 태도로 미세한 혐오의 불씨마저 없애고 장혜앵은 가문의 총부로서의 모습을 확고히 한다. 이는 ‘독보적 존재로서의 마지막 관문 통과하기’ 단계이다. 요컨대, 17세기 말~18세 초 『유씨삼대록』은 ‘장혜앵’을 통해 개과한 여성이 시가에서 독보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전경화함으로써, 장편소설의 개과천선 서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있다. 인간의 본질 혹은 여성의 처지에 대한 작가의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노정하는 가운데, 개과천선하는 인간 혹은 여성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씨삼대록』은 그 의의가 크다.

국문핵심어: 장편소설, 유씨삼대록, 장혜앵, 개과천선, 독보적 인물, 거듭나기

1 서론

『유씨삼대록』은 여성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형상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유씨삼대록』을 ‘진양공주전’이라고 평가할 만큼,¹ 전인적 성품의 ‘진양공주’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이루어졌다. 진양공주가 적국인 장혜앵 및 남편 유세형과의

1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12호, 한국고전문학회, 1997.

갈등 속에서 극심한 심적 고통과 육체적 위협을 겪으면서도 장혜앵을 지극 정성으로 개과(改過)시키는 한편, 살아서는 물론 요절한 이후에도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점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다.² 그런데 『유씨삼대록』에서는 진양공주에 대한 깊이 있는 형상화와 더불어, 그 한편에서 진양공주에 의해 개과한 ‘장혜앵’이라는 여성이 시가에서 진정한 대접을 받기까지의 과정 또한 섬세하게 구현되어 있다. 장혜앵에 관한 서사는 개과한 여성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시가에서 독보적 인물로 거듭남으로써 확실한 입지를 확보하는 과정을 면밀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장편소설에서 문제적 인물이 문제적 행위를 일으키는 과정은 상세하게 묘사된다. 그런데 개과한 이후에는 갈등이 일시에 소거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것으로 소략히 끝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 사례로 『창선감의록』의 심씨 등을 들 수 있다. 『창선감의록』에서 우인형 인물인 심씨의 경우, 악인형 인물인 조씨 등이 처벌되는 것과 달리 화진의 효행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개과하는 인물로 등장한다.³ 그런데 심씨의 개과와 관련해서 이전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지닌 채 화진 등을 아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천선(遷善)’

-
- 2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논의로는 다음과 같이 있다.(이수희,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구운몽』·『소현성록』·『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 김서운, 「고소설에 나타난 공주혼 모티프의 문학치료적 함의—『소현성록』과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34호, 문학치료학회, 2015 ;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공주/군주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5 ; 이지하, 「대하소설 속 여주인공의 요절(夭折)과 그 함의—『천수석』과 『유씨삼대록』의 경우」, 『어문연구』 제4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 전기화,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효 수행」, 『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이상화(理想化)’ 양상 연구—『사씨남정기』의 ‘사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8 ; 김태영,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진양공주’의 성현(聖賢)화와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67호, 열상고전연구회, 2019 ; 김태영, 「『유씨삼대록』에 형상화된 ‘진양공주’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 『고소설연구』 제51호, 한국고소설학회, 2021 ; 이나라,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혼인여성의 고난과 의미—진양공주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52호,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1)
- 3 이에 대해서는 김수연, 「『창선감의록』의 개과천선과 악녀(惡女) 무후(無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에서 논의한 바 있다.

에 관한 별다른 내용 없이 가족간에 화평하게 지내는 것으로 간략히 마무리된다. 이처럼 장편소설 전반에서 악인형 혹은 우인형 등의 문제적 인물과 관련하여 개과 이후의 삶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음으로써 다소 동화적인 혹은 당위적인 해피 엔딩을 맞이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한 인물이 개과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행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사람들의 태도가 급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장편소설 중 몇몇 작품에서는 개과 이후의 천선의 과정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남성인물과 관련하여, 『성현공숙렬기』·『임씨삼대록』 연작의 ‘임유린’, 『옥원재합기연』·『옥원전해』 연작의 ‘이원외’ 등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성현공숙렬기』 연작에서 임유린은 임한주 형제를 시기하여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중국에는 개과하여 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물로 거듭난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집안의 가록(家錄)에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되고, 그의 아들인 임관홍이 가록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상심하여 과거공부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에 임유린은 더욱 더 인격을 고양하는 양상이 펼쳐진다.⁴ 이와 유사하게 『옥원재합기연』 연작에서도 이원외가 온갖 소인행을 일삼다가 개과하였지만, 과거의 전적이 석도첨 형제가 지은 『옥원재합기연』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남겨진다. 이에 이원외는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신의 과거 행실을 생각하며 더욱 더 인격 수양에 힘씀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망을 떨치고, 석도첨 형제는 다시 『옥원전해』를 지어 이원외의 성덕을 칭송한다.⁵

4 임유린의 이전 악행이 그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양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논의한 바 있다.(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임씨삼대록』의 임관홍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2호, 한국고설학회, 2010)

5 이원외의 개과천선과 관련하여 초점화하여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 이미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바 있다.(정병설, 「『옥원재합기연』: 탈가문소설적 시각 또는 시점의 맹아」, 『한국문화』 제24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9;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4호, 국문학회, 2000;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 『고소설연구』 제

이처럼, 이들 작품에서는 한 개인이 행한 악행은 단순히 개과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꼬리표처럼 그 인물을 따라다니므로써, 개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이를 이겨내기 위한 인격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개과 이후의 천선에 대한 형상화를 강조한 위의 사례들은 개과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성인물과 관련하여, 『유씨삼대록』의 ‘장혜앵’ 외에도 『유이양문록』의 ‘이차염’, 『임화정연』의 ‘여미주’, 『옥루몽』의 ‘황소저’ 등에서 개과 이후 각고의 노력을 통한 참회 혹은 인격수양과 관련한 내용이 밀도 있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유이양문록』의 이차염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유씨삼대록』의 장혜앵, 『임화정연』의 여미주 등과 더불어 ‘애정애육형’ 여성인물이 ‘여사지향형’ 여성인물로 거듭나는 양상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로 주목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애정애육형-악인’과 ‘여사지향형-선인’의 이분법적 틀을 깨고 틈새를 확보함으로써 극단적 가문중심주의의 완화라는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⁶ 한편, 『옥루몽』은 황소저의 개과천선 서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소설작법 및 작가의식에서 이전의 작품보다 진일보하였다고 분석한 논의도 있다. 이 논의에서는 개과천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형상화의 강화, 인물 성격 변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통해 여타 작품에서의 악인 여성과 차별되는 개과천선 서사를 마련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⁷

그런데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은 이러한 여성인물들 가운데서도 천선의 과정이 가장 확실하면서도 품격있게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은 『유이양문록』의 이차염, 『임화정연』의 여미주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차원이 다른 인물로 등장한다.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은 전형적인 애정애육형이기보다는 정식으로 남주인공과 약혼하였다가 진양공주의 늑혼(勒婚)으로 인해 자신이 밀리는 과정에서 악인으로 치닫는 인물로 형상

15호, 한국고소설학회, 2003)

6 조광국, 「『유이양문록』의 이차염 캐릭터론—애정애육형에서 여사지향형으로 경계넘기, 『한중인문학연구』 제51호, 한중인문학회, 2016.

7 조혜란, 「『옥루몽』 황소저의 성격 변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화된다. 따라서 여타의 인물에 비해 애정애욕형의 성격이 약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인물설정에서도 애초부터 이차염, 여미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차염, 여미주처럼 개과 이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는 소박한 수준에서의 천선에 대한 형상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을 통해 시가에서 가장 존중받는 여성인물로 거듭나는 고차원적 수준의 천선에 대한 형상화로 나타나고 있다.

장혜영의 독특한 면모는 『옥루몽』의 황소저와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황소저는 개과 이후 자신의 죄과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탈속을 추구하다가 가까스로 시가에 수용되어 자신의 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유씨삼대록』의 장혜영은 개과 이후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천선의 뚜렷한 궤적을 통해 성녀로 등장하는 진양공주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즉 『유씨삼대록』의 장혜영은 단순히 개과천선의 형상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가에서 죄를 지은 여성이 개과 이후에 독보적 인물로 격상되는 드라마틱한 과정이 다양한 서사장치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처럼, 『유씨삼대록』의 장혜영은 잘못을 행했던 인물이 단순히 개과 이후 가문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여성인물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이 다각도의 서사장치를 통해 구축되어 있다. 이는 크게 유사 사건을 통한 시험대 통과하기, 도덕성 고양을 통한 자질 현시하기, 주변의 멸시를 관대한 처사로 넘어서기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개과천선 서사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⁸

2 개과한 여성의 독보적 인물로 거듭나기 과정의 서사화

『유씨삼대록』에서 장혜영이 개과 이후 질적 성숙을 통해 독보적 입지를 확보하는 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녀가 악행을 행하다 개과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

8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본 20권 20책 『유씨삼대록』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현대어번역본(한길연·김지언·정언학, 『유씨삼대록』 1-4, 소명, 2010)을 참고하기로 한다.

기로 한다. 장혜앵은 “경성경국홀 식이 이셔 년이 십삼의 총명혜힐ㅎ미 밋츨 리 업스니”⁹라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미모와 총명함이 독보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유우성의 둘째아들 유세형과 정식으로 약혼하게 되는데, 유세형과 진양공주의 늑혼이 없었다면 별다른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기에 진양공주에 대한 그녀의 악행은 공감을 자아내게 그려진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혜앵은 양가 부모의 주선 하에 유세형과 자연스럽게 정혼한다. 결혼 전 유세형이 정혼한 장혜앵의 인물됨을 알고 싶어 장인 어른이 될 장준에게 간청하여 장혜앵을 보고는 한눈에 반하기까지 하기에 이 둘 사이에는 행복한 미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진양공주의 늑혼으로 인해 장혜앵은 파혼당하게 될 뿐 아니라, 유세형의 얼굴까지 본 까닭에 평생 수절하며 살아가야할 상황에 놓인다. 진양공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태후에게 간청하여 장혜앵이 유세형의 둘째부인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장혜앵의 입장에서는 진양공주만 아니었으면 자신이 유세형의 정실부인으로 떳떳하게 살아갔을 터인데 항상 진양공주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둘째부인으로 고개 숙여야 하는 처지에 크게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이에 자신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는 유세형을 격동하여 진양공주를 냉대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유세형이 진양공주의 의상을 훼손할 정도의 폭력까지 자행하게 만든다. 이러한 내막을 짐작한 시부모는 장혜앵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진양공주는 궁중으로 잠시 들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진양공주의 빼어남과 장혜앵에 미혹되어 그릇된 행실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유세형이 진양공주를 지극히 사모하게 됨으로써 전세가 역전된다. 진양공주가 궁에서 다시 유씨 가문으로 돌아온 후에 진양공주의 주선으로 장혜앵도 유씨 가문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예전과 달리 자신을 경멸하며 냉혹하게 대하는 유세형의 태도에 좌절한 장혜앵은 결국 진양공주를 독살하려고 하다가 발각된다. 이후 장혜앵은 처지를 비판하며 자살하려고 마음먹지만, 도리어 자신이 장혜앵에게 곤경을 안겨주었다고 청죄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간청하는 진양공주의 언사에 감동하여 결국 잘못을 뉘우친다.

이러한 내용은 여타의 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서사이다. 장혜앵의 악행에는

9 1권, 47쪽.

유세형에 대한 애정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만 그보다는 자존심에 상처 입은 인물이 그릇된 길로 접어드는 과정과 이를 진양공주가 보듬으면서 개과의 문턱에 들어서는 과정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런데 『유씨삼대록』에서는 개과 이후 장혜앵의 질적 성숙을 보여주는 천선과 관련한 서사가 매우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기에 주목을 요한다. 더욱이 『유씨삼대록』에서 가장 이상적 인물로 등장하는 진양공주¹⁰가 요절한 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인물로 장혜앵이 격상되는 과정이 상세히 구현되어 있기에 더욱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시가구성원들의 의심의 눈초리와 냉대가 지속되는 등 순탄치 않은 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장혜앵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자기 수양을 통해 시가에서 가장 환대받는 인간으로 거듭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유사 사건을 통한 시험대 통과하기

『유씨삼대록』에는 장혜앵과 유사한 사건을 겪는 장혜앵의 조카딸 장설혜와 관련한 서사가 등장한다. 장설혜는 혼인 직후 장혜앵과 흡사한 악행을 행하게 되는데, 장설혜가 장혜앵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장혜앵은 장설혜와 관련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엮이게 된다. 이때 장설혜와 관련한 사건은 장혜앵이 변모된 자신을 보여줄 시험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개과 이후 일종의 통과의례 과정을 보여준다.

장설혜는 장혜앵의 오라버니인 장시랑의 막내딸로, 미모가 빼어나지만 교만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평소 장씨 가문에서는 진양공주 소생인 유현을 마음에 두고 장혜앵을 통해 청혼하려 하지만, 장혜앵은 조카딸의 성품을 알기에 이를 무마시켜 버린다. 이런 가운데 유현은 양소저와 혼인하게 되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서먹하다. 그런데 어느 날 장혜앵이 친정에 갔을 때 문안인사 드리러 온 유현이 우연히 장설혜를 보고 한 눈에 반해 부모 몰래 장씨 가문에 청혼한다. 이 사실을 알고 유세형은 아들 유현을 태장하면서 엄히 혼내지만, 장설혜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없었던 유현은 상사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된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장

10 박일용, 앞의 글 ; 한길연, 앞의 글(2018) ; 김태영, 앞의 글(2019).

혜영은 유세형을 설득하여 장설혜를 유현의 둘째부인으로 맞이하도록 한다. 장혜영은 이후 조카라도 사정을 두지 않고 장설혜를 매우 엄격하게 대한다. 그러나 장설혜는 유현의 첫째부인인 양소저를 질투하여 양소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거짓 간부서로 모함하기도 하며, 인전기라는 남자를 유씨 가문의 시녀로 위장시켜 양소저를 겁탈하려고까지 한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 발각되어 시부인 유세형에 의해 출거당하자, 장설혜는 자신을 쫓아낸 유세형에게 원한을 품고 모친 및 외삼촌과 결탁하여 유세형이 모반을 꾀하려 한다고 모함한다. 다행히 진양공주가 남긴 유표(遺表) 덕분에 유세형은 위기를 넘기고 사건의 진말도 밝혀진다. 장설혜의 패악에 분노한 유현이 장설혜를 단칼에 목베어버림으로써 장설혜와 관련된 사건은 일단락된다.

장설혜와 유현 사이의 사건은 장혜영과 유세형 사이의 사건과 흡사하게 전개됨으로써, 장혜영의 이전의 과오를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설혜의 등장은 개과한 장혜영의 존재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장설혜에 대해 냉철하게 처신하면서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장설혜의 등장은 장혜영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일종의 시험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여곡절 끝에 장설혜가 유씨 가문에 들어오자, 집안사람들은 단지 장설혜의 사람됨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설혜의 고모인 장혜영의 사람됨을 다시금 의심하게 된다.

- ① 공이 부인을 도라보아 곁오디 부인 달이 나의 슬하를 님하니 이 또한 하눌이라 홀일업거니와 부인이 능히 소정을 존절하고 현의 양쳐 디 접을 이증 업시 혼갈긋치 호믈 원호니 능히 이 일을 헝홀소냐 (9권, 75-76쪽)
- ② 드디어 당년의 당부인과 공주의 호던 일을 주시 니르고 탄왈 이제 당부인이 옥주의 대덕을 감화호샤 성현의 늑흔 덕을 추복호시나 당시호여는 진실노 옥주의 성덕을 업늘너 업시코져 호시던디라 호믈며 부인

이 왕희 의존하미 업고 공주의 소환던도하시미 주공의 엄둥하심과 니
 도하니 주공의 명달하시므로도 촌소의 신텡하시를 면티 못하여 계시
 거늘 흘며 공주의 형시니잇가 부인은 조심하쇼셔 (10권, 27쪽)

①은 장설혜를 유현과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킨 뒤에 유세형이 장혜앵에게 사사로운 정을 끊고 유현의 두 처인 장설혜와 양소저를 똑같이 대해줄 것을 당부하는 대목이다. 장혜앵이 조카인 장설혜를 편애할 것을 염려하여 한 말로, 유세형의 이 말은 장혜앵이 사사로운 정을 제어하고 공평하게 처신할 수 있는가 그 자질을 의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②는 원상궁이 양소저에게 간언하는 대목이다. 장설혜를 별달리 의심하지 않는 양소저에게 원상궁은 장설혜의 고모인 장혜앵과 진양공주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장혜앵이 진양공주의 대덕으로 지금은 개과하였지만 이전에는 진양공주를 억누르고자 악행을 감행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양소저는 진양공주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양소저가 진양공주처럼 공주로서의 위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철한 유세형도 장혜앵의 참소에 판단을 잃었는데 경도한 유현은 더욱 더 장설혜의 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이 말에 대해 양소저는 시어머니인 장혜앵의 성덕을 이야기하며 지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 원상궁에게 당부하지만, 장설혜의 등장은 곧바로 장혜앵의 과거를 환기하면서 집안사람들이 장혜앵과 장설혜를 같은 부류로 인식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신의 자질을 의심받고 이전의 과오가 끊임없이 환기되는 상황에서 장혜앵은 자신과 장설혜와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평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장설혜와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한다. 먼저 궁중사람들 모두 양소저의 편이기에 외로운 처지의 장설혜를 모친인 장혜앵에게 부탁한다고 유현이 말하자, 장혜앵은 다음과 같이 단칼에 거절한다.

부인이 추게 우어 왈 네 날을 알오미 딜오를 쟈 구” 흔 소정을 일월가 녀 이느냐 딜이 임의 네 둥디를 어덜고 일신의 부귀 극하니 무슨 근심이 이셔 슬픈 빗치 나타나리오 궁둥이 양시로 처결한다 하미 이 정히 히오의

본성을 덕희디 못흐미라 군즈와 당부의 소견이 아니 // 만일 딜의 우름
이 쫘디 아니코 너의 의심이 기러날딘디 궁둥이 반드시 샹풍패속흐는 일
이 이시리니 (...) 히오는 모르미 명심흐여 당부의 도량과 군즈의 유신흐
를 힘쓰고 필부의 용이흐를 취티 말나 (10권, 3-4쪽)

장혜앵은 유현에게 자신이 장설혜를 조카라고 끼고 돌며 구구한 사정을 들 줄 아
 느냐고 하면서, 장설혜가 이미 일신에 부귀가 극하니 무슨 근심이 있을 것이냐고
 말한다. 그러고는 궁중사람들이 양소저와 결탁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유현이 본
 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군자의 소견이 아니라고 일러준다. 그리고 앞으로 장설
 혜의 서러워하는 울음이 끊이지 않고 유현의 근심이 커진다면 궁중의 풍속이 문
 란하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군자의 도량과 신의를 기르라고 유현에게 당부한다.

또한, 장혜앵은 질녀인 장설혜의 사람됨을 깊이 염려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
 인 자리에서도 조금도 각별하게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상궁에게 장설혜를
 단속할 것을 부탁하기까지 한다.

어시의 당부인이 딜녀의 위인을 곱히 녀너흐여 추후 등인 공회에 범연
이 샹디흐여 조곰도 각별이 보미 업스며 소상궁을 당부흐여 골오디 딜이
성되 교우흐여 공근흔 품이 적으니 내 만일 일호 수정으로 가차흔 죽 무
음의 밋논 배 이셔 삼가미 업슬디라 내 수정이 업스미 아니로디 그 가다
듬아 조심과자 흐여 주루 샹종흐를 윈티 아니흐노니 그디 맛당이 공근흐
기로써 그르치고 내 침소의 설 양 이 인과 혼가지로 왕니흐고 무상이 출
입디 말나 흐라 소상궁이 (...) 위인이 노성흐고 강직흐미 간관의 풍치
잇는디라 엇디 그 덕힌 바의 소리흐리오 당시의 동정을 관속흐여 주헝흐
를 막고 (10권, 1쪽)

장혜앵은 장설혜가 성품이 교만하고 공손치 못하기에 만일 자신이 조금이라도
 사정을 보아 준다면 믿는 바가 있어 더욱 삼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사로
 이 자신의 침소에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고는 소상궁에게 장설혜를 친히 가르쳐
 줄 것을 당부한다. 이에 노성하고 강직한 소상궁은 장설혜를 단속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저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설혜가 악행을 거듭하자, 장혜앵은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청함으로써 장설혜로 인해 가란(家亂)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한다. 먼저 거짓 간부서는 물론 거짓 간부까지 들여 장설혜가 양소저를 음해하려는 사건이 발각나자, 장혜앵은 장설혜를 바빠 친정으로 돌려보내고는 자신의 죄를 빈다.

일문이 다 모든 후 시비로 당시를 불너 명하여 동정의 쓸니고 그 죄목을
닐너 들니고 혼낫 교조를 그초아 당시를 보내니 당시 (...) 눈물을 흘니
고 이미호를 발명하니 존고 당부인이 좌의 이셔 공의 노귀 점〃 더으믈
보고 좌우를 꾸지져 당시를 교주의 너허 당부로 보내고 인하여 구고귀
청죄 왈 첩의 연고로 딜〇를 날위여 환난이 추경의 니르니 존하의 비을
놋치 업는이다 구과 위로 왈 이 현〇의 금슬의 마당이오 양시 익이 둥하
미니 현뵈 엇디 청죄호미 이시리오 허더라 (10권, 76-77쪽)

장설혜가 양소저를 포함한 일이 발각난 뒤에 눈물을 흘리며 발명하려 할 때, 장혜앵은 좌우를 꾸짖어 바빠 장설혜를 가마에 넣어 장씨 가문으로 보낸 뒤 시부모에게 자신의 죄를 청한다. 자신의 연고로 조카딸을 집안에 들인 까닭에 환란이 이르렀으니 별 낫이 없다고 시부모에게 청죄하자, 시부모는 손자인 유현의 금슬에 마가 끼어 손자며느리인 양소저가 고난을 겪는 것이지 장혜앵의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청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해 준다.

그러나 이후에 출거당한 장설혜가 모친 및 외삼촌과 결탁하여 자신을 내쫓은 시부 유세형이 모반을 꾀한다고 참소함으로써 유씨 가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다행히 음모가 발각나 유세형의 결백이 입증되지만, 장혜앵은 친정 조카의 일로 이처럼 막대한 풍파가 밀어닥친 것에 몸 둘 바를 모르게 된다.

이때 부인이 공의 나옥호믈 드른 후브터 곡귀를 쓰쳐 반드시 공과 흠귀
죽으려 결허더니 천만 의외에 그 딜녀의 작언이 여초하여 무츨니 증가로
뻘 그 가운데 너허 일이 당춧 망극히 되엇는디라 공이 위티흔즉 증가스

소로 등문고를 쳐 칼흔 잡아 딜너로 시비롤 두토아 옥석을 분변하고 흙
 과 죽고더 허더니 텃지 붉이 슬피시고 공주의 유포로 말미암아 옥시 프
 러 대공이 성도를 어드매 흥신과 김시 죽고 조가의 누명을 쏘흔 신설하
 나 전후 어저러오미 조가로 말미암아 공의 굿기를 크게 붓그리고 (...)
또 당시량이 원덕하고 학발 빵친이 놀나고 슬허허미 참담하여 여러 가지
로 초전허니 (...) 공의 청허물 듯고 강잉하여 등당의 니르러 머리를 두
 두려 청죄 왈 (...) 관저의 죄롤 어덜더니 흥혀 선비의 용납허심과 공의
 큰 덕을 힘 닦어 (...) 딜네 명공의 조부 향의 모뎀허니 미양 등심의 참괴
 하여 소경을 쓴코 대의를 잡아 딜어 보기를 흥노긋치 허믈 명공의 아루
 시는 배라 이제 득죄흔 출부의 작일이 존문을 망허믈 니르도 말고 첩으
로 강상 죄인을 민드라 혼갓 공을 해허미 아니라 첩을 죽이미니 이제 명
공이 무스하고 요인이 패루허나 첩의 지친으로 해 이에 미츄므로 첩이
엇디 참괴치 아니며 장춧 죄 엇디 업스리오 원컨디 붉이 다스려 인정을
두디 마루쇼서 설과의 주취 만면허니 부인이 본디 조식이 관세하여 미화
벽도의 아담하고 향기로오물 습허엇더니 희한흔 화익으로 심녀를 과히
하여 (...) 의연이 축뇌 되어시니 공이 비록 엄준허나 본디 부인 심지 텃
 험하여 녀허는 곳의 과도허물 아는디라 심하의 감동하여 추연이 늦빛
 출 곳치고 녀어로 하여곰 부인을 붓드려 평신허라 하고 위로 왈 이논 고
의 문회 불헿고 현의 호탕허므로 비로소미니 부인의 허물이 아니라
부인이 엇디 죄롤 당허리오 (...) 청컨디 안심보듯하여 고로 하여곰 두
 번 고분디통을 날위디 말디어다 말숨이 근절하고 안식이 유화허니 부인
 이 갑히 감격하여 샐레허더라 (12권, 47-51쪽)

위의 장면은 장설혜의 모함으로 유세형이 역모죄에 휘말렸다가 사실이 밝혀져
 무사히 돌아온 뒤에 장혜앵이 유세형에게 청죄하는 대목이다. 유세형이 궁에 잡
 혀간 뒤 장혜앵은 식음을 전폐하다가 조카인 장설혜의 모해로 벌어진 일임을 알
 고는 등문고를 쳐서 임금 앞에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다행히 무죄함이 밝혀진 후
 유세형이 무사히 돌아오자, 장혜앵은 몸 둘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면서 머리를 땅
 에 두드리며 유세형에게 죄를 청한다. 한낱 “축뇌(鬪腦) 되어시니”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조카로 인해 남편이 역모죄로 몰리고 친정에서는 올케언니가 죽고 오라버니가 유배 가는 등의 참극이 벌어짐에 따라 장혜앵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 더욱이 장설혜가 냉담했던 고모 장혜앵에게도 원한을 품고 유세형이 서번 정벌 시 황포(黃袍)를 가져가 모반을 꾀하려 한다는 말을 장혜앵이 친정에 가 전했다고 모함하였기에 장혜앵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님에도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해골 같이 초췌해진 장혜앵의 모습을 본 유세형은 조금도 장혜앵을 탓하지 않고 그 결백함을 인정하며 위로해 준다. 유현이 방탕하고 문호가 잠시 불행하여 그러한 것일 뿐이라면서 자신이 두 번 아내를 잃는 슬픔이 없도록 몸을 보전하라고 장혜앵에게 신신당부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장설혜의 악행과 관련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오해와 의심의 눈초리는 점차 사라지고, 장혜앵이 얼마나 도덕적인 인물인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장설혜와의 확실한 선을 긋고 공명정대하게 처신한 장혜앵은 장설혜가 행한 악행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확실히 자신의 입지를 지키면서 장설혜와는 전혀 다른 인물로 개과천선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2 도덕성 고양을 통한 자질 현시하기

장혜앵은 개과 이후 도덕성의 고양을 통해 품격 높은 자질을 현시함으로써 시가에서 중요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된다. 앞서 장설혜와 관련한 사건이 장혜앵이 진정으로 개과하여 이전과는 다른 인물이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서사장치라면, 도덕성의 고양을 통해 집안에서의 뚜렷한 행적을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로 거듭났음을 명시하는 서사장치가 된다. 특히 『유씨삼대록』에서 남녀를 통틀어 가장 이상적 인물인 진양공주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장혜앵은 진양공주와 맞먹는 인물로까지 격상되는 가운데 여성인물 중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진양공주가 죽은 뒤에 장혜앵은 자신에게 자식들과 집안일을 부탁했던 진양공주의 유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노력한다. 우선 진양공주의 소생인 유관, 유현 형제 및 영주소저를 자신의 친생 자식들보다도 더 아끼며 올바르게 교

육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유관 형제는 장혜앵을 친모 이상으로 극진히 섬기며, 유관의 경우 ‘장부인 효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자사이가 친밀하게 된다. 장혜앵은 자식을 교육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궁중을 다스릴 때도 상궁 등을 예의로 대접하면서 궁중이 조금도 어지럽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쓴다.

한편, 장혜앵은 진공 즉 유세형의 정실부인으로 진국부인이 되었음에도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일례로 유관의 결혼식날 신부가 폐백을 올리려 하자 장혜앵은 진양공주의 혼령이 밝히 비추고 있는데 자신이 어찌 그 자리에 앉겠느냐고 하면서 신부의 폐백을 사양하며 평배(平拜)로 인사 받는다. 이처럼, 개과한 뒤에 현숙한 여성으로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장혜앵은 집안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된다.

장혜앵에 대한 집안사람들의 시선이 확실히 바뀌었음은 먼저 남편인 유세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양공주의 상례 후 지극한 슬픔으로 인해 뼈만 남은 채 병이 든 유세형에게 장혜앵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언하게 된다. 삼강오륜을 실천함에 임금과 부모가 중대함을 잊고 부부간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병이 든 것은 대장부로서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진양공주의 혼령도 유세형의 이와 같은 처사에 저승에서 개탄할 것이니, 충효를 완전하게 하려면 슬픔에서 벗어나 몸을 보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한다. 이러한 직언에 유세형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공이 변연이 니러안자 기리 탄식고 골오디 현지라 부인의 말이 울코 디
하니 선비를 디훈 듯호도다 호믈며 부형의 놓흔 교훈을 밧조와 신심 미
순의 어리미 이시리오마는 미양 그 성덕과 의용을 징각흔 즉 괴운이 막
히믈 면티 못하니 내 쯔흔 무음으로 못호거니와 임의 뜻을 두로현 디 오
래니 병이 비록 미류하나 가복호미 머디 아닐디라 부인은 녀녀를 과히
말고(…) 내 병이 이러호고 국홀 삼년이 오히려 진치 아나시니 서로 좃
디 못호나 나지 디호여 말호른 가치 아니미 업스니 부인은 삼미로 더브
러 조루 나아와 병심을 위로호라 (8권, 95-96쪽)

유세형은 장혜앵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면서 장

혜앵의 말이 다 옳으니 마치 선비(先妃) 즉 진양공주를 대하는 듯하다고 크게 칭찬한다. 그러면서 유세형은 자신이 부형의 높은 교훈을 받았기에 신생(申生)과 미생(尾生)의 어리석음이 있겠는가마는 진양공주의 성덕을 생각하면 늘 기운이 막히는 것을 어찌지 못해 병이 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곧 병도 나을 것이니 장혜앵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또 삼년상이 지나지 않았기에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가끔씩 장혜앵이 누이들과 함께 자주 찾아와 자신의 병든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유세형의 말을 통해, 장혜앵이 진양공주가 죽은 뒤에 진양공주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현철한 행동으로 인해 집안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가던 장혜앵은 이제 유세형의 눈에 지난날의 미숙한 장혜앵이 아니라 현철한 진양공주와 동급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장혜앵이 현철하고 품격있는 행동으로 집안식구들은 물론 친인척간에 고평가되는 양상은 소씨 가문의 축수연(祝壽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진양공주 소생 영주소저가 문창군주의 직첩을 받은 후 소경문과 혼인하였는데, 소경문이 무사히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시부모의 생신을 기리기 위해 축수연을 연다. 이때 장혜앵은 마침 일이 있어 늦게 축수연에 참석하게 되는데, 뒤늦게 참석한 장혜앵의 빼어난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한다.

제왕 각노 부인 공주 군주 황친귀척이 다 모닷고 향당닌니의 쇼년부네 거의 수천이로디 뉴부 쇼년의 방불호 니도 업스니 (...) 문득 밧기 드레며 좌위 보왈 진국 부인[장혜앵]이 오시노이다 (...) 정언간의 괴이혼 향닌 코를 거스리며 궁녀 두어 빵이 명향보축을 잡아 길을 인하여 먼니 부인의 오논 위의 뵈는디라 군주와 명주 쇼제 년망이 주리롤 움겨 서로 마즐시 뒤히 진연 이후 부인과 주시 사시 옥션군쥬 조차 뵈셔시니 의관과 위의 황〃 호여 크게 범인과 다르더라 당의 올라 네롤 못고 좌의 나아갈시 닌부인이 듀벽으로 폴을 미니 부인이 소양 왈 널위 존빈이 만당호시고 더욱 소형이 우히 계시니 맛당이 형데 차례로 엇게롤 니오미 네모의 가호거늘 호믈며 (...) 엇디 도교만 작딕을 위호여 듀벽을 첩의게 소양호시리잇가 드디여 지삼 추스하고 동서로 좌를 덩호매 (...) 부인이 주소로

단장의 변화한 거슬 얽히 녀이고 칠보주취를 갖가이 아니호던디라 가비
야은 김오시 몸의 맛긋고 혼 벌 당복의 월패 성관이 그 직품을 조차 간략
하고 정결호미 완연이 진부 녀운던의 이실 적 복식이라 뭍은 아미와 별
긋흔 눈찌와 빙설 곱흔 골격이 일세를 안공호고 빗난 귀밧과 헤힐흔 풍
치 만좌의 싸혀나니 여러 쇼고금장의 흘노 웃듬 되믈 소양티 아닐디라
 (...) 이 날 뉴부 제인이 도라와 구고괴 뵈웁고 연석의 성만흠과 군주 형
 테 득의호믈 7초 알외니 니부인이 크게 깃거 노되 신상이 불평호여 여
 등으로 흠기 가 손의 동인공회에 특이호믈 귀경티 못호니 평성의 흠시
 로다 (...) 샴부인이 낭〃이 우어 왈 당형의 아담호고 절세호미 모두 넷
날 추형을 만나시던 날도곤 더으시니 쇼미 등이 탈식호는디라 심등의 분
호여 도라왔노니 단장이나 네스로이 호고 가 계시면 인물이 더 표〃티
아니련마는 혼 벌 문 업슨 녹나상과 주의금으로뻬 스스로 검박호믈 자랑
호고 추형의 샴치 금호시는 뜻을 들추어 십분 공과호니 좌등의 칠보영낙
흔 재 제 몸을 구버 보고 당형을 도라보아 단장의 화미호믈 붓그리니 당
금의 성턴지 우히 계샤 소히 태평호니 맛당이 여물기창홀디라 무소 일
독히기도호리오 당형이 오라디 아냐 괴이상션호여 승피빅운호리니 우
리 등 진환탁속을 웃디 말나 좌등이 절도호고 (18권, 17-30쪽)

이 연회에 참석한 술한 사람들 중에 유씨 가문 사람들이 매우 빼어나 견줄 자가
 없었는데, 마침 일이 있어 늦게 도착한 진국부인 즉 장혜앵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
 람들이 모두 정신없이 바라보며 그 위외의 거룩함과 빼어남에 감탄하게 된다. 장
 혜앵은 검소하게 단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어떤 여성들보다도 가장
 돋보인다. 그것은 단지 외모에서뿐만이 아니라 “뭍은 아미와 별 곱흔 눈찌와 빙설
 곱흔 골격이 일세를 안공호고 빗난 귀밧과 헤힐흔 풍치 만좌의 싸혀나니 여러 쇼
 고금장의 흘노 웃듬 되믈 소양티 아닐디라”라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품격에
 있어서도 독보적으로 빼어나다. 더욱이 사돈인 진부인이 장혜앵에게 주벽(主壁)
 즉 최고 높은 자리를 내어주지만, 장혜앵은 이를 거듭 사양하면서 진부인과 동렬
 에 앉음으로써 겸양의 덕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더욱 품격 높은 자질을 현시하게
 된다.

이 날 저녁 몸이 불편하여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장혜영의 시어머니인 이부인을 모시고 다들 연회에 관해 담소를 나누는데, 이때 장혜영의 시누이인 사부인은 장혜영의 외모가 유세형과 혼인하던 소싯적보다도 더 빼어나 자신들 모두 빛을 잃었다고 말한다. 더욱이 장혜영이 매우 검소하게 단장하고 왔음에도 칠보로 장식한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빼어났다고 하면서, 세상사람 같지 않은 독보적 아름다움으로 보건대 조만간 신선이 되어 백운 사이로 오를 것 같으니 속세에 물든 자신들을 비웃지 말라고 하면서 한 바탕 웃음을 자아낸다.

이러한 대목들은 장혜영이 유씨 가문에서 그 독보적인 빼어남으로 인해 자타의 공인을 받는 양상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혜영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도덕적 자질을 고양하고 이를 현시함으로써, 시가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주변의 멸시를 관대한 처사로 넘어서기

장혜영이 젊은 시절부터 중년이 될 때까지 도덕적 자질의 고양을 통해 집안식구들로부터 지극한 존경을 받게 되지만, 장혜영에 대한 혐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작품 말미에 배치되어 있다. 장혜영이 애초에 행했던 악행에 대한 근본적 혐오감이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양상은 순씨라는 우인형 인물을 통해 가시화된다. 이 사건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장혜영의 이전 악행이 환기되고 경박한 인물에 의한 멸시가 극에 달하는 양상이 펼쳐진다. 그러나 장혜영은 이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고 공손한 처사로 집안식구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한다.

순씨는 장혜영의 막내시동생인 유세필의 둘째부인으로, 용렬하고 경박하며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젊어서는 부끄러움도 있고 시부모가 있기에 눈치를 보느라고 조금은 자제를 하였지만, 중년부인이 된 후에는 자신이 나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시부모가 돌아가시자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순씨라는 인물에 의해 시댁식구들로부터 존경받던 장혜영이 치욕스러운 멸시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장혜영은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그 제사를 받들며 맏며느리 소임을 다하

면서 가중이 화목하도록 힘쓴다.¹¹ 이때 방자해진 순씨는 장혜앵을 만만히 보고 높은 목소리로 호령하며 공손하지 못한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나 장혜앵은 관대하고 담담하게 처신할 뿐만 아니라, 순씨를 비웃는 주변인들로부터 순씨를 보호하기까지 한다.

오덕 화협기를 주호여 순씨의 불공혼 거죄 이신즉 문득 웃고 짓거 왈 디
재 천여일실시오 우재 천유일득이라 하니 모든 형테와 좌우는 웃디 말
나 순부인 척언이 나의 허물을 씨뎛게 호는도다 하니 모다 그 인혜호를
칭복호더라 (19권, 25쪽)

장혜앵은 화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순씨의 공손치 못한 행동에도 관대하게 대하며 순씨를 옹호한다. 지혜로운 자도 한 번 실수하기 마련이고 어리석은 자도 천 번 생각함에 한 번 얻을 것이 있으니 집안사람들에게 순씨를 비웃지 말라고 하는 한편, 순씨가 자신을 꾸짖기에 도리어 자신이 허물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이에 집안식구들은 장혜앵의 인자하고 지혜로운 처사에 감복한다. 이렇게 장혜앵은 자신을 얹잡아보는 막내동서 순씨에게 동요되지 않고 관대하게 처신함으로써 집안식구들로부터 칭송받는다.

그런데 화목하기를 위주로 하여 순씨에게 줄곧 관대하게 대하면서 마찰을 피해오던 어느 날, 시부모의 삼년상을 마치고 탈상하자 마야흐로 그 동안 보지 못했던 부부끼리 오랜만에 해후하는 날이 오게 된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부모 혹은 시부모를 생각하며 한바탕 통곡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지만, 평소 남편 유세필을 사모하던 순씨는 수년만에야 남편을 만나자 큰 눈을 정신없이 굴리면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다. 이런 행실을 보고 소년배들은 서로 눈짓하며 비웃게 되는데, 마침 순씨의 아들 유침은 자기 옆에 있던 장혜앵의 아들 유양이 자신의 모친을 비웃는 것을 목도하고는 이 사실을 순씨에게 전한다. 이에 순씨는 대로하여 장혜앵

11 장혜앵이 유우성의 차남인 유세형의 부인이지만 시부모인 유우성과 이부인을 모시고 시부모의 사후에도 제사를 받드는 총부 역할을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유우성의 장남인 유세기는 유백경의 양자가 되었기에 유세기와 그 부인인 소부인은 유백경 부부를 모시는 데 힘쓴다. 이에 유세형 부부가 유우성·이부인을 주도적으로 모시게 된다.

에게 온갖 모욕적인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가증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

순시 텅하의 대로하여 고평디 네 부친이 진공의 서제 아니오 내 당시의
얼패 아니〃 제 엇디 나의 동용을 기찰하여 우스리오 이 반드시 당시의
부축이라 혼 번 크게 욱하여 감히 업슈이 녀이디 못하게 허리라 하고 분
연이 돌출하여 니당을 향하니 그 친성자녀 구인이 망극하여 붓들고 말닌
죽 순시 크게 소리 디르고 주머귀로 주녀를 어저러이 쳐 것구로치고 부
용각의 니르니 (...) 순시 불의에 드라드러 부인의 뜯 관을 벗기쳐 쫓고
철퇴 고평 주머귀로 어저러이 치며 대매 왈 간악한 투뵤 공주를 모살하
고 구고의 망하시를 주야의 비다가 때를 타 드라드러 웅거하여 가권을
총집하여 (...) 구고의 지물을 진탈하여 당부와 진궁으로 노르니 진궁이
역시 혼 당이 되어 이 집이 조만의 기동만 남을디라 너긋치 간악한 거시
어디 이시리오 네 아들 양이 이제 빅슈지년의 날을 쇼년창첩 비쇼호듯
면〃 상고하여 비쇼절도하니 이 엇디 인지리오 반드시 진공과 너 요인이
지휘허미니 이제 문더 너를 다스리고 양의 죄를 다스리리다 당부인이 어
히 업시 녀여 말을 아니코 모든 주네 실식하여 진연 이 휘 다 노식이 잇
거늘 부인이 눈을 드러 왈 너히 아디 못호노도다 므릿 위상재 실테하여
위하자의게 업슈이 녀이플 밧느니 금일 변이 진실노 나의 어디〃 못하
미라 하 면목으로 제속을 보오며 디하의 구고기 뵈오리오 셤파의 몸을
니러 순시를 향하여 샤레 왈 첩이 불초하여 데스금당으로 더브러 혼당의
즐거오를 능히 헝티 못하여 부인의 엄흔 칩을 바드니 붓그러오미 늦 돌
곳이 업는디라 원컨디 첩의 용졸호를 샤호신죽 거의 허물을 곳쳐 넷 즐
거오를 회복호고 쇼주의 방주호 죄를 동척호샤 은이룰 더욱 듯터이 허시
플 바라노이다 말씀이 더욱 공근온화호고 안식이 주약하니 순시 다시 흘
말이 업서 입속의 모지리 꾸짓고 문득 거름을 두로혀 셔헌으로 드르니
(19권, 26-28쪽)

순씨는 자신의 아들의 말을 듣고는 대로하여 자신의 남편이 진공의 서제(庶弟)가 아니고 자신도 장혜앵의 일파(孽派)가 아닌데 유양이 어찌 자신을 비웃느냐고 하

면서 이 모든 것이 장혜앵이 부추긴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는 장혜앵을 크게 욕보여 자신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장담하고는 자식들이 극구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마구 때려 거꾸러뜨리고는 장혜앵의 처소에 가 장혜앵이 쓴 관을 찢고 철퇴 같은 주먹으로 어지럽게 치면서 장혜앵을 꾸짖는다. 간악한 투부인 장혜앵이 진양공주를 몰래 죽이고 시부모가 운명하기를 밤낮으로 빌다가 이제 때를 타 가권을 총감독하며 시부모의 재물을 모두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흰머리가 된 자신을 어린 창첩 비웃듯이 유양이 비웃는 것도 장혜앵이 시킨 것이기에 먼저 장혜앵을 다스리고 유양의 죄를 다스릴 것이라고 겁박한다.

막내동서인 순씨의 이러한 패륜적 행동에 장혜앵은 하도 어이가 없어 말을 하지 않고, 장혜앵의 자녀들도 모두 실색하여 노한 기색이 가득하게 된다. 그럼에도 장혜앵은 윗사람이 실체하면 아랫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 난리가 자신이 어질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니 집안식구들과 지하에 계신 시부모 뵙기가 부끄럽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순씨에게 자신의 옹졸함을 용서해주면 자신이 허물을 고쳐 이전의 즐거운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유양의 방자한 죄도 순씨가 엄하게 꾸짖어 더욱 은애를 두텁게 해 달라고 공손히 답한다. 이에 순씨는 더 할 말이 없어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이후 순씨는 외당으로 가서 장혜앵을 험담하는데, 이때 장혜앵의 아들들이 와서 유세형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집안식구들 모두 실색하게 된다. 유세형의 바로 아래 동생인 유세창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여 순씨와 유세필을 엄책해야 한다고 말한다.

녕능휘[유세창] 불연 작식 왈 당슈논 모부인 자최를 니으샤 가니의 덕당
이라 우리 등의 실개 힝흠매 엇게를 곶오디 못흐거놀 흠믈며 주혜흐신
성덕이 엇더흐신 털뵈완디 이런 고이훈 일이 이시리오 오늘날 거조논 상
한천뉴의 일이라도 드믈녀든 흠믈며 후빅법문의 여츄 히연지시 실노 닌
국의 들니미 붓그러온디라 만일 다스리디 아닌족 후일을 더욱 니르디 못
흐리니 맛당이 오데[유세필]의 제가 못흐 죄를 다스리시고 숲수를 절축
호여 경계흐미 올흐니이다 (19권, 29-30쪽)

유세창은 장씨 형수가 모친의 자취를 이은 집안의 정통 어른임을 강조하면서 순씨의 만행이 얼마나 패륜적인가를 설파한다. 장씨 형수는 거동할 때 자신들의 아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할 정도로 성덕이 빼어난 철부(哲婦)인데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천한 아랫것들도 하지 않을 해괴한 일이 공후백작 가문에서 일어났으니 그 부끄러움을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그러고는 제가를 못한 막내동생 유세필과 패악한 일을 자행한 순씨를 절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이때 유세필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순씨를 출거하려고 마음먹고는 그 스스로 당 아래 내려 청죄하게 된다. 유세형은 순씨를 출거하려는 유세필을 만류하고 자신의 아들 유양을 태장한다. 유세필도 유세형의 의견을 좇아 순씨를 출거하려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자식들을 태장함으로써 이 일은 일단락된다.

이 사건은 경박한 순씨와 같은 인물을 통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장혜앵에 대한 죄의 꼬리표가 남아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한편, 장혜앵이 관대한 태도로 이러한 꼬리표마저 확실히 제거하고 명실상부한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개과한 여성의 독보적 인물로 거듭나기 과정의 서사화의 의미

『유씨삼대록』에서는 ‘장혜앵’이라는 여성이 개과 이후 시가에서 단순히 수용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보적 위치로 거듭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과천선 서사의 뚜렷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비교적 이른 시기인 17세기 말~18세기 초¹²에 이러한 개과천선의 서사문법을 확실히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개과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숙을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진실한 인정을 받을 때 진정한 개과에 이르게 된다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장편소설의 초기작을 보면, 『사씨남정기』에서는 권선징악 서사를 초점화하

12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박일용, 앞의 글; 한길연,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42호, 한국고소설학회, 2016 참조.

여 악녀인 교씨가 징치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서사구도를 구축함으로써¹³ 개과천선 서사는 생략되어 있고, 『창선감의록』에서는 심씨의 개과천선 서사가 마련되어 있지만 화진의 효행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면서¹⁴ 개과천선 서사는 소략히 제시되어 있다. 『소현성록』에서도 절개를 잃은 소교영이 그 모친에 의해 처형되고 패악스러운 명현공주가 개과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는 등 전반적으로 권선징악 서사가 펼쳐지고 있기에 개과천선에 관한 내용은 미약한 편이다.

그런데 『유씨삼대록』은 창작시기상 이들 초기 소설을 이은 이른 시기의 장편소설임에도, 장혜앵이라는 여성인물을 통해 개과한 여성이 시가에서 독보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섬세하게 형상화함으로써 개과천선 서사를 전경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말~18세기 초에 개과천선 서사의 틀을 확실히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1) 유사 사건을 통한 시험대 통과하기, 2) 도덕성 고양을 통한 자질 현시하기, 3) 주변의 멸시를 관대한 처사로 넘어서기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었다. 이들 사건은 약간 선후를 달리하기도 하지만 대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에 각각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기’, ‘독보적 존재로서의 마지막 관문 통과하기’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먼저 유사 사건을 통한 시험대 통과하기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장설혜와 관련된 사건은 장혜앵이라는 커다란 사건 속에 삽입된 유사 사건으로, 일종의 미장아빔(mise en abyme)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미장아빔은 ‘그림 속의 그림’,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극중극’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서사의 복합적 의미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격자 구조 기법이다.¹⁵ 반복과 변주를 통해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게 되며, “한 구절, 한 부분, 혹은 한 시퀀스가 전체 텍스트를 축약하여 실행해 보이

13 조현우,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14 김수연, 앞의 글.

15 신혜경, 「미장 아빔(mise en abyme)에 관한 소고」, 『미학·예술학 연구』 제16호, 2002 참조.

는 방식”으로 전개된다.¹⁶ 그런데 『유씨삼대록』에서는 유사 사건의 변주를 통해 장혜앵과 장설혜가 겹쳐지는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라지는 지점을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장혜앵의 개과천선의 면모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다. 두 사건의 유사성만큼이나 초기에는 집안식구들이 두 사람을 동일시하여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치켜세운다. 이러한 긴장감을 깨고 장혜앵은 냉철한 판단과 올바른 처신으로 조카인 장설혜와의 경계를 확실히 그음으로써 변모된 자신의 모습을 집안식구들로부터 확인받는다.

장혜앵에 관한 서사가 『유씨삼대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데 반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장설혜의 서사는 작품의 한 대목 정도의 소략한 비중으로 등장한다. 장설혜의 서사를 장혜앵의 서사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장설혜는 단순히 장혜앵의 조카라기보다는 과거의 장혜앵의 분신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혜앵의 소싯적 일과 흡사한 장설혜의 서사는 장혜앵의 과거의 모습의 투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러링을 통해 그 동일시되는 지점만을 비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달라진 장혜앵의 현재의 모습까지 확연히 드러내게 된다. 즉 장설혜의 서사는 장혜앵이 과거의 죄 많은 자신의 모습에서 분리되어 현재의 개과천선한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형상화한 서사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서사장치를 통해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확실한 거리감을 확보한 장혜앵은 그 다음 단계로 도덕적 고양을 통해 자신의 자질을 공공연하게 현시한다. 이는 『유씨삼대록』에서 남녀를 통틀어 가장 이상적 인물로 등장하는 진양공주¹⁷를 대신하는 인물로 격상되는 양상으로 구현되어 있었다. 진양공주의 덕화로 인해 깨달음을 얻은 장혜앵은 요절한 진양공주의 빈자리를 대체하면서 집안사람들에게 진양공주의 화신처럼 자리 잡게 된다. 진양공주 소생을 친자식보다도 더 아끼며, 남편에게 현철한 간언을 하고, 항상 검소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유씨 가문의 여성 중 독보적 인물로 승양된다. 개과한 여성이 이전의 과실로 인

16 로버트 스템, 오세필·구종상 역, 『자기 반영의 영화와 문학』, 한나래, 1998, 16쪽.

17 박일용, 앞의 글; 한길연, 앞의 글(2018); 김태영, 앞의 글(2019).

한 죄의식의 무게감으로 머리를 숙인 채 시가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 최고로 존중받는 인물로 격상되는 양상이 구현되어 있는 것이다. 개과시킨 인물과 개과한 인물 사이의 바통터치가 이루어지면서 극적 반전이 실현되는 이 과정은 바로 장혜앵이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기’ 단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 미세하게 남아있는 혐오의 불씨마저 말끔히 없애버림으로써 가문의 총부로서의 모습을 확고히 하는 서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전의 자신과는 차별되는 독보적 존재로 우뚝 섰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전의 행실과 관련하여 일말의 떨시 혹은 혐오의 시선이 남아있게 된다. 이는 우인형 인물인 순씨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장혜앵은 지극히 관대하고도 공손한 처신을 통해 마지막 남은 불신의 그림자마저 말끔히 거두어내고 명실상부한 가문의 총부로 우뚝 선다. 단 하나의 불신조차 관용과 겸손의 미덕으로 말끔히 해소하고 자신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는 이 사건은 ‘독보적 존재로서의 마지막 관문 통과하기’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혜앵의 개과천선 서사는 후대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기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다면,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이원외,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임유린, 『유이양문록』의 이차염, 『임화정연』의 여미주, 『옥루몽』의 황소저 등의 인물들은 『유씨삼대록』의 장혜앵보다 후대에 창작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들 인물들에게서 개과

18 그간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옥원재합기연』·『옥원전해』 연작은 18세기 중엽 이전(심경호, 「낙선재본(樂善齋本) 소설의 선행본(先行本)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 제1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작가 재론」, 『관악어문연구』 제22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이지하, 앞의 글(2001) 참조), 『성현공숙렬기』·『임씨삼대록』 연작은 18세기 이후(임치균, 앞의 글; 조용호, 앞의 글; 최수현, 「『임씨삼대록』 여성 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참조), 『임화정연』은 18세기 말엽~19세기(허춘, 「『임화정연(林花鄭延)』고(考)」, 『연세어문학』 제17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 1984; 조광국, 「『임화정연』에 나타난 가문연대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2호, 2002 참조)에 창작되었다. 『유이양문록』은 『유씨삼대록』에 등장했던 유우성 등의 인물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김은일,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의

이후의 천선의 과정이 상세하게 형상화된 것에는 장혜영의 개과천선 서사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이원외의 경우, 그 소인적 행태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상적 인물로 탈바꿈하면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인물로 격상되는 개과천선 서사가 밀도 있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유씨삼대록』의 장혜영을 잇는 개과천선의 반전 서사가 확실히 노정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⁹

그렇다면 『유씨삼대록』에서 큰 잘못을 행한 장혜영이라는 여성이 개과 이후 가문에서 독보적 여성으로 거듭나는 서사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장혜영이 어떠한 인물에 의해 개과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씨삼대록』에서 장혜영의 악행은 진양공주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그 개과 또한 진양공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장혜영이 항상 진양공주가 임종시에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상기하면서 그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장혜영의 개과천선 서사에는 진양공주의 성스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 성스런 덕으로 장혜영을 비롯한 유씨 가문 구성원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집안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진양공주는 『유씨삼대록』에서 남녀를 통틀어 가장 이상적이고 핵심적인

미], 『한국고전연구』 제34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유씨삼대록』보다 후대작으로 추정된다. 『옥루몽』은 남영로(南永魯)가 지은 작품으로 19세기에 창작되었다.(차용주, 『옥련몽(玉蓮夢)』의 작자(作者) 및 저작연대고(著作年代考)], 『어문논집』 제10호, 안암어문연구회, 1967; 성현경, 『옥련몽(玉蓮夢) 연구』, 『국문학연구』 제9호, 국문학연구회, 1968 참조)

19 『옥원재합기연』에서 이원외가 온갖 소인행을 일삼다가 개과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석도첨 형제가 지은 『옥원재합기연』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남겨지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원외의 사돈 경내한은 소인행을 일삼던 이원외가 개과천선하여 자신보다도 더 높은 명망을 얻게 된 것을 못마땅해 하던 중 『옥원재합기연』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원외에게 전해주며 놀린다. 이에 이원외는 개과한 지 7년이나 지났는데도 자신의 이전 과실이 조롱거리가 된 사실에 너무나 부끄러워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원외의 아들 이현윤은 석도첨 형제를 미워하는 한편, 부친을 조롱하는 장인 경내한과도 갈등이 고조된다. 이원외는 자신의 이전 행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 반성하면서 더욱 더 도덕적 교양에 힘써 자신을 변화시키며, 이현윤을 첩가(贅家)하게 하여 장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에 석도첨 형제는 『옥원전해』를 지어 이원외의 성덕을 칭송한다. 이처럼 『옥원재합기연』 연작에서는 개과천선한 인물의 반전 서사가 밀도 있게 구현되어 있다.

인물로 등장한다. 그렇기에 진양공주에 의해 그 자질을 인정받고 개과하게 된 장혜앵은 마땅히 진양공주의 안목에 맞게 개과 이후 그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물로 변모함으로써 진양공주의 성덕을 기리 현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진양공주의 성스런 은택이 장혜앵에게 드리워져 있기에 장혜앵의 개과 천선 서사가 전경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선감의록』의 화진의 효행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심씨의 개과천선 서사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창선감의록』에서의 심씨의 짝막한 개과천선 서사와 달리, 『유씨삼대록』에서의 장혜앵의 개과천선 서사는 작품의 초반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매우 비중 있게 구현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장혜앵의 개과천선 서사는 단순히 진양공주의 성덕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만 그 존재 이유가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작가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장혜앵이라는 인물에는 『유씨삼대록』 작가의 깊이 있는 인생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씨삼대록』은 엄격한 예법의 구현 혹은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형상화 등을 통해 볼 수 있듯이,²⁰ 심도 있는 문제의식을 노정하면서 장편소설 중에서도 품격있는 작품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특히 주요인물들이 80세까지 장수하는 대부분의 장편소설과 달리, 『유씨삼대록』에서는 주요인물들이 요절하거나 40~50세에 죽음을 맞이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삶의 문제를 심도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²¹

삶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인물의 형상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씨남정기』에서 사정옥이라는 여성을 이상적 인물의 전범으로 제시하면서도 불교에 심취하는 인물로서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과 달리, 『유씨삼대록』에서는 진양공주라는 여성을 이상적 인물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유교에 전일한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성인군자형 인물로서의 여성의 가능성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²² 『유씨삼

20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제39호,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07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예법(禮法)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제34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21 한길연, 앞의 글(2007).

22 이에 대해서는 한길연, 앞의 글(2018)에서 상론한 바 있다. 선인형 여성인물이 불교에 심취하는 양상은 『사씨남정기』뿐만 아니라 『소현성록』에서도 나타난다.

대록』은 앞선 시기의 장편소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악인형 인물의 형상화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씨삼대록』에서도 철저한 악인형 인물인 장설혜는 『사씨남정기』의 교씨처럼 처형된다. 장설혜는 장혜애와 유사한 듯하지만, 장혜애와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장혜애가 적국인 진양공주를 모해하려는 정도에서 그치는데 반해, 장설혜는 적국인 양소저는 물론 시부모인 유세형과 장혜애까지 모해하려는 악행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강상(綱常)을 범하는 극악한 죄를 행한 장설혜는 장혜애와 달리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군자의 잘못은 마치 일식·월식과 같다. 그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를 보게 되고, 그가 잘못을 고쳤을 때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본다.”²³라고 하여 개과천선의 중요성을 설파한 유교의 논리처럼²⁴ 극악한 잘못을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작가의식이 장혜애이라는 인물에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을 불변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고정된 캐릭터로 그려낼 것인가 아니면 잠재력이 무궁한 존재로 파악하여 역동적 캐릭터로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고심을 장혜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인공의 효행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된 『창선감의록』의 심씨 등에게서 보이는 미약한 수준의 개과천선 서사를 넘어서는, 심화된 수준에서의 개과천선 서사를 마련하려는 의도와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잘못을 행했던 인물에게 쏟아지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낙인을 지워내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장 도덕적 인물로 거듭나는 ‘반전의 서사’를 통해 인간을 고정불변한 존재보다는 잠재력이 무한한 존

23 “君子之過也，如明月之食焉，人皆見之，更也，人皆仰之”(『논어』「자장편(子張篇)」)

24 유교에서 개과천선을 강조한 점은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의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다.(過而不改是謂過矣)”라는 구절, 『논어』 「자한편(子罕篇)」의 “잘못을 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過則勿憚改)”라는 구절, 『논어』 「용야편(雍也篇)」의 “그는 두 번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다.(不貳過)”라고 공자가 안연(顔淵)을 칭찬한 구절, 『논어』 「학이편(學而篇)」의 “하루 세 번 자신을 반성한다.(吾日三省吾身)”라고 증자(曾子)가 말한 구절 등에서 잘 드러난다. 유교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이를 반성하고 착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재로 형상화하려는 작가의식을 담아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듭남의 서사를 정립함으로써, 고전인물 캐릭터에서 입체적 인물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입체적 캐릭터를 통해 선행연구에서도 논의한 바 있듯이 인물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²⁵ 유교에서 강조한 개과천선의 윤리를 소설 속에 심도 있게 구현해 내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개과천선 서사의 대상으로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가에서 한번 죄인으로 낙인찍힌 뒤 죄의식에 사로잡혀 움츠린 채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가장 뛰어난 여성으로서 당당히 거듭나는 서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혜앵이라는 인물형상은 작가의 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시가에서 큰 죄를 짓고 출거당하기까지 한 여성이 시가에서 독보적 인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당대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터이다.²⁶ 그렇기에 장혜앵과 같은 캐릭터를 창조해낸 것은 당대 여성들의 바람도 투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피해를 겪으면서 잘못을 행하게 되는 여성들이 이에 대한 원죄의식으로 시가에서 평생 고개 숙인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겠지만, 『유씨삼대록』에서는 이를 당당히 이겨내고 질적으로 승화된 모습을 통해 인간승리를 보여주는 인물로서의 장혜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장혜앵이 죄를 짓게 된 데에는 당대의 남성중심적 문화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과도한 자의식으로 인해 결국 진양공주를 살해하려는 악행으로까지 치닫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늑흔이라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강요된 결혼문화 속에서 이미 약혼했어도 파혼당해야 하며, 혼인 전 약혼자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해도 수절해야 하고, 우여곡절 끝에 남성 가문에 들어와도 일부다처제 속에서 과도한 경쟁과 질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

25 조광국, 앞의 글(2016).

26 조선시대 여성은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서뿐만 아니라 입가외인(入家外人)으로서 시가에서 외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김열규 외, 『가(家)와 가문(家門)』,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에 여성은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혜앵은 적국인 진양공주를 미워하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당대의 여성들 또한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부지불식간에 한두 번의 죄를 범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⁷ 그렇기에 장혜앵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죄인으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적 문화의 희생양으로서 인식하고²⁸ 그녀에게 복권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여성의식의 발현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혜앵의 인물형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속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유씨삼대록』의 작가가 여성이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혹 『유씨삼대록』의 작가가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당대에 인습화된 남성중심적 문화를 옹호하는 남성이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겸비한 남성에 의해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진양공주’를 통해 이상적 여성이 한 가문에 미친 지대한 공로와 더불어 그 이면에서의 고충이 요절이라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27 장혜앵의 악행에는 진양공주에 대한 질투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질투심은 단순히 장혜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질투는 칠거지악의 한 항목으로 여성들이 이를 멀리하도록 교육하였지만, 기실 당대의 여성들에게 질투는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는 이덕무의 『사소절(士小節)』 「부의(婦儀)」 〈성행(性行)〉 조항의 “질투를 잘하는 부인은 집안의 첩에 대해서만 질투할 뿐만 아니라 남이 첩을 두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 부인을 대신해서 질투하니, 어찌 그리도 무례한가?(善妬之婦, 不惟妬家中之妾媵, 聞人有妾, 代其婦而妬之, 何爲嫫也)”라는 대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당대 여성들이 얼마나 질투심이 컸으면 자기 남편의 첩뿐만 아니라 남의 남편의 첩에 대해서까지 질투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적 독점욕은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이를 질투라는 이름으로 금기시함으로써 당대 여성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28 이와 관련하여 “더 곱흔 지모식티로 도로혀 진양공주 그 우히 거후니 이 정히 유투 내고 냐을 닌 탄이 당시고 날넉죽후더라”(18권, 19쪽)라는 서술자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혜앵의 독보적 재주와 용모로도 진양공주가 그 위에 자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주유(周瑜)를 내고 제갈량(諸葛亮)을 낸 탄식과 같다고 하면서 장혜앵의 이전 악행에 대한 변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발언은 곧 작가의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일부 다처제 속에서 여성 간에 과도한 경쟁을 하며 우위를 정해야만 하는 고달픈 현실에 대한 고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해 남성중심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자각과 고통을 깊이 있게 형상화하고 있으며,²⁹ ‘설초벽’이라는 여성영웅의 형상을 통해 여성의 자기실현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적 공간인 시대를 떠나 자기만의 공간으로 향하는 주체적 모습을 전경화하고 있다.³⁰ 여성의 주체적 자각과 관련하여 자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이들 인물과 더불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장혜앵’이라는 여성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는 조그마한 잘못에도 여성들이 쉽게 내쫓김을 당했던 시대였다.³¹ 그렇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적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진양공주, 설초벽 등과 달리, 장혜앵은 과거의 죄로 인한 주홍글씨를 진 여성이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완벽한 이상형으로서의 여성 모델이 아니라 인간적 실수를 하지만 자기개신을 통해 시가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며 자의식을 당당히 회복하는 여성 모델로서 장혜앵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혜앵의 인물형상은 장편소설사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장편소설에서 개과하는 인물유형과 개과하지 않고 징치되는 인물유형을 남녀간에 대비해 보았을 때, 남성인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과하고 포용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여성인물의 경우에는 나이든 여성을 제외하고는 징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² 『창선감의록』의 심씨, 『성현공숙열기』의 여부인, 『완월회맹연』의 소교완 등의 경우는 남주인공의 효행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개과하는 사례로 당위적인 개과천선 서사로 기능하며, 질투심으로 악행을 행했던 젊은 악인형 여성들은 대부분 징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씨삼대록』의 장혜앵, 『유이양문록』의 이차염, 『임화정연』의 여미주 등의 개과천선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장편소설에서 개과천선 서사는 대개 남성에게 허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29 이지하, 앞의 글(2017) ; 한길연, 앞의 글(2018).

30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제19호, 국문학회, 2009.

31 『대대례기(大戴禮記)』에 의하면 칠거지악은 불순(不順), 무고(誣告), 무자(無子), 음행(淫行), 질투(嫉妬), 악질(惡疾), 구설(口舌), 절도(竊盜) 등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 후기 당대 여성이 얼마나 쉽게 시가에서 쫓겨날 수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32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바 있다.(한길연, 「대하소설 속 범죄 양상 연구」, 『고소설연구』 제48호, 2019)

이러한 전반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 개과를 통해 가문에 다시 포용되는 인물로서의 장혜앵이라는 여성인물이 형상화된 것만으로도 이례적인데, 거기에 개과 이후 가장 이상적 인물로 거듭남으로써 대외적인 존경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인물로 그려진 것은 더욱 독특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과 이후 가문에 다시 포용되는 여성 중에 『유이양문록』의 이차염, 『임화정연』의 여미주, 『옥루몽』의 황소저 등은 이전의 죄과를 부끄러워하는 한편 또 다시 악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둔적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낮춘 삶을 살아간다. 이와 달리,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은 자신의 삶의 궤적을 유지하면서 천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이상적 인물인 진양공주의 뒤를 이어 유씨 가문에서 최고의 여성으로 격상되고 있다. 그렇기에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의 서사는 장편소설의 개과천선 서사에서 그 심도 있고 획기적인 내용으로 인해 뚜렷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요컨대,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은 개과 이후 천선의 과정에 대한 섬세한 형상화를 통해 개과한 여성이 시가에서 독보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전경화함으로써 장편소설의 개과천선 서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있다. 인간의 본질 혹은 여성의 처지에 대한 작가의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노정하는 가운데, 개과천선하는 인간 혹은 여성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씨삼대록』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국립중앙도서관본 『유씨삼대록』 20권 20책.

한길연·김지언·정언학, 『유씨삼대록』 1-4, 소명, 2010.

단행본

김열규 외, 『가(家)와 가문(家門)』,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1-158쪽.

로버트 스태프, 오세필·구종상 역, 『자기 반영의 영화와 문학』, 한나래, 1998, 1-383쪽.

논문

- 김서윤, 「고소설에 나타난 공주혼 모티프의 문학치료적 함의-『소현성록』과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34호, 문학치료학회, 2015, 189-219쪽.
- 김수연, 「『창선감의록』의 개과천선과 악녀(惡女) 무후(無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335-363쪽.
- 김은일,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34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73-202쪽.
- 김태영,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진양공주’의 성현(聖賢)화와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67호, 열상고전연구회, 2019, 323-360쪽.
- _____, 「『유씨삼대록』에 형상화된 ‘진양공주’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 『고소설연구』 제51호, 한국고소설학회, 2021, 39-70쪽.
-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 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12호, 한국고전문학회, 1997, 187-220쪽.
- 성현경, 「옥련몽(玉蓮夢) 연구」, 『국문학연구』 제9호, 국문학연구회, 1968.
- 신혜경, 「미장 아빔(mise en abyme)에 관한 소고」, 『미학·예술학 연구』 제16호, 2002, 119-138쪽.
- 심경호, 「낙선재본(樂善齋本) 소설의 선행본(先行本)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 제1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169-188쪽.
-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77쪽.
- 이나라,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혼인여성의 고난과 의미-진양공주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52호,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21, 403-437쪽.
- 이수희,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구운몽』·『소현성록』·『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251-278쪽.
-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188쪽.

- _____, 「대하소설 속 여주인공의 요절(夭折)과 그 함의—『천수석』과 『유씨삼대록』의 경우」, 『어문연구』 제4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213-238쪽.
-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210쪽.
- 전기화,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효 수행」, 『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47-171쪽.
-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조선후기 여성소설가의 한 사례」, 『관악어문연구』 제22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1997, 317-332쪽.
- _____, 「『옥원재합기연』: 탈가문소설적 시각 또는 시점의 맹아」, 『한국문화』 제24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9, 81-98쪽.
- _____,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4호, 국문학회, 2000, 231-259쪽.
-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공주/군주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5, 225-258쪽.
- 조광국, 「『임화정연』에 나타난 가문연대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2호, 한국고전문학회, 2002, 163-190쪽.
- _____, 「『유이양문록』의 이차엽 캐릭터론—애정애욕형에서 여사지향형으로 경계넘기」, 『한중인문학연구』 제51호, 한중인문학회, 2016, 43-68쪽.
-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230쪽.
- 조현우,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319-348쪽.
- 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임씨삼대록』의 임관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2호, 한국고소설학회, 2010, 255-289쪽.
- _____, 「『옥루몽』 황소저의 성격 변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163-197쪽.
- 차용주, 「『옥련몽(玉蓮夢)』의 작자(作者) 및 저작연대고(著作年代考)」, 『어문논집』 제10호, 안암어문연구회, 1967, 37-46쪽.
- 최수현, 「『임씨삼대록』 여성 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189쪽.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 『고소설연구』 제15호, 한국고소설학회, 2003, 117-138쪽.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제39호,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07, 1-30쪽.

_____,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제19호, 국문학회, 2009, 171-196쪽.

_____, 「『유씨삼대록』의 예법(禮法)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제34호,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 173-215쪽.

_____,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42호, 한국고소설학회, 2016, 5-45쪽.

_____,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이상화(理想化)’ 양상 연구—『사씨남정기』의 ‘사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169-202쪽.

_____, 「대하소설 속 범죄 양상 연구」, 『고소설연구』 제48호, 2019, 125-169쪽.

허 춘, 「『임화정연(林花鄭延)』고(考)」, 『연세어문학』 제17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99-120쪽.

Abstract

The Narrativization of the Process of a Repentant Woman's Rebirth as an Unrivaled Person
—With a Focus on Jang Hye-aeng in *Yussisamdaerok*

Han Gilyeon

This thesis focused on the narrativiza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Jang Hye-aeng, the female character of *Yussisamdaerok* (劉氏三代錄), who is reborn as an unrivaled member of her husband's family through repentance and reform. Through this, I attempt to consider the achievements of *Yussisamdaerok* in the narrative of repentance and reformation. To this end, I divided this survey into three categories: 1) passing the test through similar cases,

2) showing qualities by enhancing morality, 3) and generous treatment of the contempt around her.

First, “passing the test through similar cas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narrative of Jang Seol-hye, which appears as a *mise en abyme* of the narrative of Jang Hye-aeng, serves as a mirror reflecting the narrative of Jang Hye-aeng. Jang Hye-aeng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Jang Seol-hye with her fair demeanor, making her appear clearly different from her past sinful self. This can be said to be an epic device that embodies the step of ‘escaping from the past’.

Second, the following is related to “showing qualities by enhancing morality.” Through moral discipline and an excellent performance, Jang Hye-aeng emerges as an unrivaled figure replacing the vacancy of Princess Jinyang, the most ideal figure in *Yussisamdaerok*. Jang Hye-aeng, who was enlightened by Princess Jinyang’s teaching, is now revered by the family as an incarnation of Princess Jinyang. This can be said to be a step toward a ‘rebirth as a new self’.

Third, the “generous treatment of the contempt around her” can be explained as follows. Jang Hye-aeng establishes her status as the eldest daughter-in-law of the family by eliminating the lingering embers of hatred. Due to her previous behavior, Mrs. Sun gives a look of contempt and disgust. However, Jang Hye-aeng, through her extremely generous and polite behavior, sheds the shadow of such hatred and establishes herself as the eldest daughter-in-law of the Yu family in name and reality. This functions as the step of “passing through the last gateway as an unrivaled being.”

In short, *Yussisamdaerok* marks an important milestone in narratives of repentance and reformation in the late 17th and early 18th centuries by portraying the process of becoming an unrivaled member of one’s husband’s family through the female character of Jang Hye-aeng. It is not uncommon for a woman to correct her mistakes in full-length novels, and it is a remarkable achievement that depicts a woman who is reborn as an exceedingly unique person. These observations are based on the author’s deep awareness of human nature and the situation of wome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the most ideal model of human beings who are striving to improve themselves.

Key words: full-length novel, *Yussisamdaerok* 劉氏三代錄, Jang Hye-aeng, repentance and reformation, unrivaled person, rebirth

본 논문은 2021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